

인천시, 청라 '게임산업 허브 도시' 조성 추진

‘청라 G-Tech City’ 양해각서 체결
1조 6200억원 규모, 특화단지 조성
경제성장·청년 고용 친화형 사업

인천경제자유구역(IFEZ) 청라국제도시가 세계적인 e-스포츠 게임산업의 허브로 태어날 전망이어서 눈길이 쏠리고 있다.

인천시 산하 인천경제청은 지난 17일 송도국제도시 G타워에서 ‘청라 G-Tech City’ 조성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했다고 18일 밝혔다.

체결식에는 유정복 시장을 비롯한 김진용 청장, 박철홍 한국토지주택공사(LH) 부사장, 제이슨 추 디지털 공과대학 최고 운영 이사, 대원플러스건설 최삼섭 대표 등이 참석했다.

양해각서의 골자는 총사업비 1조 6200억 원 이상을 들여 청라 투자유치용지 6블럭 약 26만395㎡에 글로벌 게임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시설, 연구개발(R&D) 시설, 국내외 게임기업 혁신지구와 스튜디오, 지식산업센터, 관광MICE시설, 게임엔터테인먼트 지구 등의 시설을 중심으로 e-스포츠산업 중심의 게임특화단지를 조성한다는 것이다.

디지털 공과대학은 e-스포츠 교육에 있어 세계 최고 수준의 대학으로 ‘게임계의 하버드’로 알려져 있다. 싱가포르, 스페인 등에 분교를 운영하는 글로벌 대학이다. 미국 시애틀 레드몬드 소재 ‘디지털 레드몬드’는 단순한 대학 캠퍼스가 아닌



인천 청라국제도시 'G-Tech City' 조감도

/인천시

해당 지역의 e-스포츠 산업단지 조성에 중요한 역할을 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인천경제청은 콘텐츠산업 육성을 위해 K-POP, 영상콘텐츠 제작 등과 관련한 다양한 투자유치를 진행하고 있다. 본 사업이 진행됨으로 인천경제자유구역, 특히 청라국제도시에서 진행되고 있는 다른 사업들과도 시너지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본 사업과 관련하여 해외 굴지의 게임산업 관련 기업들이 아시아의 생산거점을 갖는다는 계획에 깊은 관심을 표하

고 있다. 특히 한국은 K-콘텐츠의 창의성 및 우수한 전문가 인력자원 보유로 아시아 e-스포츠 생산거점 조성에 국제적 경쟁력이 있다는 평가다.

국내 e-스포츠 산업은 2021년 기준 20조 9913억 원으로 최근 10년간 한국 경제성장률(연평균 3.2%)보다 3배 이상 고(高) 성장하고 있는(연평균 9.8%) 산업이다. 2021년에는 11.2%의 성장률을 보였다. 고용 유발 계수가 타 산업에 비해 높은 청년 고용 친화형 산업이다.

제이슨 추 디지털 공과대학 최고운영이사는 “한국의 강력한 콘텐츠 시장과 디지털 공과대학의 실무 중심적인 교육 과정 및 인재 배출 경험은 청라 G-Tech City 추진 과정에서 많은 시너지를 일으킬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대원플러스 최삼섭 회장은 “오늘 양해각서 체결을 시작으로 이스포츠 클러스터 조성, 게임테마파크와 호텔 등도 조속히 추진하여 인천이 첨단콘텐츠 산업의 글로벌 도시로 변모하는데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박철홍 한국토지주택공사 부사장은 “청라국제도시 사업시행자로서 이번 MOU 체결을 통해 청라국제도시가 K-콘텐츠 중심 경제도시로 나갈 기회가 마련됐다”며 “앞으로도 LH는 다양한 외국인 투자유치 사업을 통해 지역 고용이 창출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진용 청장은 “게임산업과 관련해 국내외 시장 특히 모바일 성장세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고 전망 또한 무궁무진하다”며 “앞으로 청라에 국제적인 게임산업 클러스터가 조성되면 청라 발전에 기폭제 역할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유정복 시장은 “괄목한 성장을 해온 우리나라의 게임산업은 세계적인 기술력을 더해 독보적인 산업 경쟁력을 확보해야 한다”며 “앞으로 인천시에 부합하는 차별화된 e-스포츠산업 유치를 위해 적극적으로 협력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최재윤 기자 cjy6148@naver.com

5·18 민주화운동, 개념부터 바꾸자

데스크 칼럼



김양훈 논설위원

5·18하면 광주,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시민들이 항쟁에 나섰던 아픈 역사로 많은 피를 흘리게 만든 전두환이란 이름을 잊을 수 없다.

당시 권력자의 말 한마디가 군부를 움직이고 군인의 총칼에 소중한 국민의 생명이 희생 당해 5·18은 민주주의 항쟁 역사로 보는 날이 됐다.

그간 정당의 정치는 5·18을 정치적으로 이용했던 것도 사실로서 반성해야 할 시간이 됐다. 5·18의 아픔은 광주만의 아픔이 아닌 대한민국의 아픔이다.

교과서에나 나오는 날이 아니다. 대한민국 분단의 시간 지금도 보내고 있는

시점에서 허위적 불은 세력과 틈을 노리고 파고든 진짜 불은 세력들도 묻어서는 안 된다.

시민들이 희생하던 그 시대를 우리는 순수시대라고 했던 사실을 기억하고 있다. 순수가 이용당했던 시대적 참상은 반공이란 이름으로 무참하게 공격을 당했다. 그때 시대를 회상하면 가난했지만, 정(情)이 풍족했던 시대로 386세대라면 잘 알고 있다. 우리의 순수하고 아름다웠던 삶, 정이가 가득했던 시대를 생각나게 만든다.

반세기에 가까운 40여 년 오늘날 모습은 순수란 찾아보기가 어려울 만큼 새로운 세대들의 탄생과 기득권이 된 당시의 세대들은 권력욕에 미쳐갔다는 것도 아픔이다. 그때는 빈부의 격차가 크지 않아 운동권의 항거는 독재와 싸움에 있어 정의감에 불탔다. 아날로그·디지털·AI 시대로 발전된 오늘날의 이념과 ‘격세지감’

을 느낀다.

5·18 광주항쟁 개념부터 바뀌어야 한다. 영호남 곁은 보수·진보란 색깔로 나뉘어 정치적 기반으로 자리를 잡았다. 보수 정치인이 방문하면 환영을 받지 못했다. 또 진보 정치인이 방문하면 열렬히 환영을 받았다. 이는 정치적으로 이용된 반증이다. 시간은 반세기 가까이 흘렀다.

정치인이든 누구든 방문함에 있어 중립 시각으로 바라보아야 한다. 극성 시민단체 갈라치기도 문제다. 오늘날 시민단체들은 권력의 노예가 됐다.

우리는 5월 18일 광주 민주화 운동의 아픔을 이용하지 않았는지 되짚어 보는 시간을 가져야 한다. 모든 국민이 쓰러린 역사 앞에 숙연한 자세가 필요하다. 또 우리가 놓치고 있는 5·18 사연이 없는지, 찾아야 할 사연을 미루고 있는지 그 날을 기억하는 것은 이런 태도가 진정한 애도가 아닐까 생각된다.

미추홀구, 청소년어울림마당 1회차 'Youth Land' 개최

여성가족부와 인천시, 미추홀구가 주최하고 미추홀구청소년수련관이 주관하는 미추홀구청소년어울림마당 1회차 'Youth Land'가 오는 20일 오후 2시부터 미추홀구청소년수련관 앞 농구장에서 개최된다.

미추홀구청소년어울림마당은 지역사회 내 청소년 활동 활성화를 위해 청소년·학교·관계기관이 함께 운영하는 청소년 축제다.

한편, 1회차 'Youth Land'는 청소년과 가족을 주제로 한 다양한 체험활동과 더불어 개막식, 모범 청소년 시상식 등 각종 이벤트와 공연이 함께 진행될 예정이다.

고석찬 미추홀구청소년수련관장은 “올해 첫 청소년 축제인 만큼 수련관 차기 구 청소년들과 관련 학교 및 기관들이 다양한 체험 부스와 공연을 열심히 준비했다”며 “이번 축제에 함께 참여해 미추홀구청소년수련관 및 지역 청소년에게 많은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최재민 기자 cjm9907@naver.com

‘2023 인천 일자리 한마당’ 개최... 100개 기업 참여

오는 23일 송도컨벤시아서 진행 여성·장애인·노인·다문화 등 구직

인천광역시시는 인천시민의 고용촉진과 기업의 인재 채용을 장려하기 위한 ‘2023 인천 일자리 한마당’을 오는 23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송도컨벤시아에서 개최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인천시와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인천지방중소벤처기업청, 인천병무지청, 한국산업단지공단 인천지역본부, 인천항만공사, 인천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가 공동 주최기관으로 참여한다.

이와 관련, ‘2023 인천 일자리 한마당’은



인천의 우수강소기업 등 100여 개 기업에 취업을 연결하는 인천지역 대규모 일자리 채용행사로 취업을 희망하는 구직자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특히 이번 일자리 한마당에서는 여성·장애인·노인·다문화 등 관련 기관과 협업하는 맞춤형 통합 박람회로 운영해 중소기업의 구인 활동을 돕고 고용 취약계층의 구인·구직도 지원할 예정이다.

일자리 한마당은 총 5개의 관으로 구분·운영해 참가자의 수요에 맞췄다. 채용관에서는 인천지역 우수강소기업, 신기술 및 뿌리기업, 향만·항공·물류기업, 병역지정업체 등을 포함한 100개 기업 인사담당자가 현장에서 면접을 진행한다.

이어 ‘내 일(My Job) 정보관’에서는 공동주최 기관이 참여해 일자리 정책 및 사업을 안내하고 취업 정보를 제공한다. 나에게 맞는 일자리 상담을 받을 수 있다. 구직자를 대상으로 입사서류 컨설팅과 함께 가상현실(VR)을 통한 가상 면접 체험 및 인공지능(AI)을 활용한 CAT16 역량진단 검사 등을 실시한다.

조인권 시 경제산업본부장은 “참여기업에는 우수 인재를, 구직자에게는 양질의 일자리가 제공되는 맞춤형 채용의 장이 될 수 있도록 행사를 준비하겠다”며 “앞으로도 전 계층이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일자리 박람회를 지속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최재윤 기자 cgy6148@naver.com

인천경제청, 공한지 무단경작 불법에 대해 칼 댔다

개청 이후 처음 행정대집행 실시 지역 주민 불편 한계 넘어 대처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이 송도국제도시 내 무단 경작지에 대해 칼을 빼들었다.

인천경제청은 17~18일 송도 6공구 힐스테이트레이크 인근 호수변과 바다 방면 공한지 내 무단 경작지에 대한 행정대집행을 실시했다.

특히, 불법 적치물 4톤 가량을 폐기 조치하고 불법 경작지를 원상 복구했다. 장소는 5곳 총 8000㎡에 달하며 행정대집행은 개청 이후 처음이다. 무단 경작지는 불법 경작에 따른 농업 폐기물(폐비닐) 등 불법 적치물이 오랜 기간 방치되고 비료가 살포



인천 동구 도시비전 자문단 위촉식 /동구

되는 등 도시미관을 훼손해 온 곳이다.

인천경제청 관계자는 “그 동안 지속적인 원상복구 계도에도 불구하고 개선되지 않아 주민의 불편과 생활 환경 저해를 가져오는 불법 경작에 대해 더 이상 묵과할 수

없어 이같은 조치를 취하게 됐다”고 밝혔다. 경제청은 행정대집행에 앞서 이를 예고하는 현수막을 게시하고 통보하는 등 준비를 했으며 현장에서는 만약의 사태에 대비, 관할 지구대 및 소방서의 협조를 요청했다

이화영 인천경제청 기획정책과장은 “그동안 인천경제자유구역 내 공한지의 유지·관리를 위해 현장을 단속하는 등 꾸준히 노력해 왔다”고 밝혔다. 하지만 “악취 등 주민불편이 한계를 넘어 대집행을 실시하게 됐다”며 “앞으로 엄정한 법 집행을 통해 불법 경작 행위가 발붙일 수 없도록 하겠다”라고 강조했다.

최재윤 기자 cgy6148@naver.com

동구, 도시비전 자문단 위촉



인천 동구 도시비전 자문단 위촉식 /동구

인천 동구가 ‘2040 도시종합발전계획’ 수립을 위한 도시비전 자문단을 위촉했다고 18일 밝혔다.

동구는 도시계획 등 5개 분야의 전문가들과 함께 지속 가능한 동구 미래 비전 등을 구상하기 위해 도시비전 자문단을 위촉하고 제1차 자문회의를 가졌다.

앞서 동구는 지난해 12월 ‘2040 동구 도시종합발전계획 수립용역’에 착수, 동인천역세권 등 핵심 원도심의 쇠퇴와 인구감소, 절반이 넘는 노후 공업지역, 해안 접근 단절 등 생활권 분리와 같은 태생적인 문제와 제물포 르네상스 프로젝트, 중·동구 행정구역 개편, 2040 인천도시기본계획 등 대·내외 여건 변화를 선도하고, 미래 동구의 큰 방향성을 제시하기 위해 중장기 마스터플랜을 구상 중이다. 용역은 올해 연말까지 마무리할 계획이다. 용역의 일환으로 동구 도시비전 자문단도 운영한다.

전문가들의 전문성과 경험을 바탕으로 도시계획·공원녹지·문화관광·도로교통·산업경제 등 5개 분야에 대해 동구의 미래 비전과 추진과제 등을 견고히 만들어갈 계획이다.

특히 유정복 인천시장의 1호 공약인 ‘제물포 르네상스’ 프로젝트와 연계, 실행력을 높이기 위해 인천시 등 관계기관과도 협의 중이다.

김찬진 동구청장은 “전문가 자문단의 아낌없는 자문을 바탕으로 내실 있고 실행력 있는 계획을 수립하겠다”며 “주민들이 만족하고 체감할 수 있는 단계별 도시정책을 마련하겠다”라고 말했다.

최재윤 기자 cgy6148@naver.com

최재민 기자 cjm9907@naver.com

계양구 ‘소통박스’로 시민 만족도 상승 기대

민원인, 공무원 보호을 위해 앞장

인천광역시 계양구는 18일 구민과의 현장소통 활성화를 위해 ‘소통박스’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상반기 5월 22일부터 26일까지 계산체육공원, 작전역 등 5개소를 이동하며 권역별로 실시할 계획이다.

‘소통박스’는 구정발전을 위해 구민의 목소리를 현장에서 직접 듣고자 올해 신규

로 추진하는 사업이다.

구민 누구나 민선 8기 구청장 취임 1주년의 성과와 소통 활성화 방안 등 다양한 의견을 작성해 소통박스에 넣으면 된다. 또한 지역에 필요한 사업이나 민원사항을 자유롭게 작성해 계양구 관내도에 표시하는 ‘우리 동네 신문고’도 현장에서 함께 운영될 예정이다.

윤환 구청장은 “취임 이후 줄곧 현장의 중요성과 구민과의 소통을 강조해왔다. 올

해 새롭게 추진되는 ‘소통박스’는 구민에게 정책 수립의 직접 참여 기회를 제공하고, 제출된 다양한 의견을 정책에 반영함으로써 현장소통 창구로의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계양구는 현장소통 활성화를 위한 마련을 위해 구민과의 직접 만남을 더욱 확대하고 다양한 소통 정책을 발굴해 구정 만족도를 향상해 나갈 계획이다.

최재민 기자 cjm9907@naver.com

중구, 폭언·폭행 등 민원 대응훈련 진행

민원인, 공무원 보호을 위해 앞장

인천 중구는 지난 17일 중구청 제1청 종합민원실에서 중부경찰서와 함께 ‘특이민원 비상상황 대응 합동 훈련’을 실시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훈련은 특이 민원에 의한 폭언·폭행 등 민원실 근무 중에 발생할 수 있는 비상 상황으로부터 민원인과 공무원을 보호

할 수 있는 역량 강화 목적으로 중부경찰서와 협력체계를 강화를 위해 실시됐다.

훈련은 비상 상황 가상 시나리오에 따라 △특이 민원인에 의한 폭언·폭행 상황 발생, △비상벨 작동, △방문 민원인 대피, △악성 민원인 제압, △피해공무원 보호, △경찰 인계 순으로 진행됐다.

특히 중부경찰서 112 종합상황실에 연결된 비상벨 작동을 확인하고, 신속한 경

찰서 상황 전파와 출동으로 피해를 예방하는데 중점을 뒀다.

구 관계자는 “전 공무원을 대상으로 민원 만족도 향상과 더불어 안전한 민원실 조성에 노력 중”이라며 “이를 위해 특이 민원 피해공무원 지원 대책을 포함해 의료비 및 심리상담 지원 등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최재윤 기자 cgy6148@naver.com